

#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어정서 편찬·간행 및 반사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 두보, 육유 및 주자 저술의 선집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ojeongseo's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as Described in  
Jeongjo's Letters to Hong Nak-im and of Related Records

- Centered Around the Du Fu, Lu You and Zhu Xi Anthologies -

강 순 애 (Kang, Soon Ae)\*\*

##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주자의 개인문집 선집 |
| 2. 정조의 어정서 편찬과 간행                      | 3.3 현존본 분석      |
| 3. 어찰에 나타난 어정서 편찬·간행 및<br>반사 내용과 관련 기록 | 4. 결 론          |
| 3.1 두보(杜甫)와 육유(陸游)의 시 선집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 연구는 정조가 편찬·간행했던 어정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두보, 육유 및 주자 저술의 편간 및 반사 과정에 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연계하여 편간 및 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정조조에 편간된 어정서는 왕명으로 이루어진 명찬서를 일컫는다. 어선 20종과 어편 10편이 편간되었다. 둘째, 정조 23년(1799) 홍낙임에게 보낸 8월 11일 어찰에는 『어정두율분운』 5권 2책과 『어정육률분운』 39권 13책의 편간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 『군서표기』의 편간기록, 『일성록』의 반사 및 사급기록 및 현존본을 분석하였다. 셋째, 『어정두륙천선』 8권의 선집은 정조 23년(1799) 8월 11일 어찰, 8월 12일 아침 어찰, 8월 12일 점심 어찰, 8월 13일 어찰, 8월 14일 어찰, 8월 15일 아침 어찰, 8월 15일 아침 어찰 별지, 8월 18일 어찰, 8월 22일 저녁 어찰, 12월 23일의 어찰을 분석하여 『두륙천선』의 선집, 교정, 간행 및 반사에 이르는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홍낙임에게 미리 반사된 것과 같은 장서인이 날인된 ‘奎 2220’과 ‘奎 2057’도 실사하였다. 넷째, 『어정아송』 8권 4책은 정조 23년 9월 25일 어찰의 『아송책』을 분석하였고,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경연과 주연의 진강용, 존경각 유생들의 월강용, 태학과 여러 도의 향교와 서원에도 월강용으로 반사된 것을 확인하였다.

要語: 정조, 홍낙임, 정조어찰, 어정서, 두보 및 육유, 주자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투고일: 2019년 2월 19일 최초심사일: 2019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9일  
서지학연구, 제77집, 103-124,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103>)

<ABSTRACT>

This paper briefly outlines the contents of Eojeongseo compiled and published by King Jeongjo and examines in detail the process of compiling, publishing, and distributing the anthologies of Du Fu, Lu You and Zhu Xi described in Jeongjo's letters to Hong Nak-im; the process of connecting related records and compiling, publishing, and distributing them; and the actual correlation between these record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firstly that Jeongjo's Eojeongseo was compiled and published by order of the king, with 20 selections (御選) and 10 compilations (御編) by Jeongjo. Secondly, with regards to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5 volume 2 book *Eojeongduyulbunun* and the 39 volume 13 book *Eojeongyukryulbunun*, I analyzed *Gunseopyogi's* records of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and the records of the distribution and gifting of *Ilseongrok* and the existing copy since Jeongjo's letter sent to Hong Nak-im on the 11th of October in his 23rd year of reign contains only a brief content. Thirdly, for the 8 volume anthology of *Eojeongduryukcheonseon* I examined the letters written on August 11, August 12 in the morning, August 12 at lunch, August 13, August 14, August 15 in the morning, August 15 in the morning as an attachment, August 18, August 22 in the evening, and December 23 in order to analyze *Eojeongduryukcheonseon's* anthology, edi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I also looked into the "Gyu 2200" and "Gyu 2057" which seem to have been given in advance to Hong Nak-im. Fourth, for the 8-volume-4-book of the *Eojeongahsong* I analyzed *Ahsongchaek* from Jeongjo's letter of September 25 in the 23rd year of Jeongjo's reign and also the related records to confirm that it was distributed to gyeongyeon and juyeon for the purposes of jingang (進講用), to Jongyeonggak and yuseng for wolgang, and to hyanggyos and sowons throughout many towns for wolgang.

Key words: Jeongjo, Hong Nak-im, Jeongjo's letter, Eojeongseo, Du Fu Lu You and Zhu Xi

## 1. 서론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는 영조 28년(1752) 9월 22일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 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휘는 산(禔), 자는 형운(亨運)이다. 정조 1년(1777)에 숙위대장에 홍국영을 임명하여 외척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했다. 남인인 채제공(蔡濟恭)을 재상에 임명하고 의리에 바탕을 둔 준론(峻論, 강경파)의 당평을 통해 당파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립하고, 정조의 측근세력을 결집시키는 중심기관이자 역대 왕들의 어제와 어필을 정리하고, 새로운 서적의 수집, 편찬, 간행 및 반사를 담당하는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전기에는 계지술사(繼志述事)와 송유중도(崇儒重道)에 치중하였고 후기는 정조의 새로운 학문 방법, 지식 및 인쇄문화를 바탕으로 조선조 후기의 문예흥륭을 찬란하게 꽃피우게 하였다.<sup>1)</sup> 정조 8년(1794) 화성 축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제공이 물러나게 되고, 이병모(李秉模), 심환지(沈煥之)를 중심으로 한 노론 벽파 정권이 수립되었다. 정조 24년(1800) 5월 말일에 ‘오회연교(五晦筵教)’<sup>2)</sup>를 발표하여 당평을 추진해 온 자신의 통치원칙을 밝혀 임오의리를 천명하였고, 기존 노론의 정치적 원칙에 반해 사도세자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하였다. 오회연교는 노론 벽파를 벼랑 끝으로 내몬 정조의 초상수였다. 그러나 오회연교를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정조는 24년(1800) 6월 28일 49세에 서거하여 마지막 정치개혁은 실패하였다.<sup>3)</sup>

정조는 여러 신하나 친척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정조의 정치적 이상, 정국의 운영, 일부 서적의 편찬·간행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조의 어찰을 살펴보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64건은 순조를 낳은 수빈박씨(綏嬪朴氏, 1770~1822) 생가이자 정조의 처가인 반남박씨 집안의 처삼촌 박운원(朴胤源), 장인 박준원(朴準源), 처남 박종보(朴宗輔)에게 보낸 것이다.<sup>4)</sup> 수원 화성박물관 소장본은 정조가 채제공에게 보낸 어찰과 조심태(趙心泰, 1740~1799)에게 보낸 10여 통의 어찰첩이다.<sup>5)</sup>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것은 정조가 외사촌 동생인 홍취영(洪就榮, 1759~?)에게 보낸 것으로 39통이다.<sup>6)</sup>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홍봉

1)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5.

2)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오회연교(五晦筵教), [검색일자 2019. 1. 2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6531>>.

“오회연교(五晦筵教)는 정조가 1800년(정조 24) 5월 그믐날에 경연 석상에서 내린 명령이다. 정조가 이만수를 이조판서에 임명하자, 노론 시파 김이재의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정조는 속습(俗習)을 바로잡는 교속(矯俗)의 차원에서 다스리겠다는 의미로 김이재를 처벌한 사건이다. 이때 교속의 의미를 부연하여 강조한 것이 오회연교의 주된 내용이다.”

3) Daum 백과, 정조, [검색일자 2019. 1. 2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63XX20500022>>.

4) 박철상,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자료적 가치,” 『정조의 비밀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 (서울: 푸른역사, 2011), 24-27. ; 안대회, “어찰의 정치학 - 정조와 심환지,” 『역사비평』 87(2009), 168.

5) 박철상,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자료적 가치,” 『대동문화연구』 66(2009), 16-17.

6) 임제완 편역, 하영희 교열,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삼성문화재단, 2004), 3.

한(洪鳳漢, 1713~1778)에게 보낸 40건 1첩이다. 홍승희 집안에 소장된 것은 영조·장헌세자·정조 3대의 글씨·어찰·시 등을 모은 3개 첩이다.<sup>7)</sup> 고려대학교에는 정민시(鄭民始)에게 보낸 『신한(宸翰)』 6첩 235건이 있고, 연세대학교에는 정조가 고모부인 남공철(南公轍)에게 보낸 4건의 어찰이 남아 있다. 야마구치 현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영조의 수서(手書) 25폭을 엮은 1첩, 사도세자가 장인 홍봉한에게 보낸 예찰 26폭과 예제(睿製) 1폭을 엮은 1첩, 정조가 외조부 홍봉한에게 보낸 예찰과 어찰을 엮은 4첩, 정조가 홍낙신과 홍후영에게 보낸 예찰과 어찰 등을 엮은 5첩, 그리고 홍낙륜이 보유하고 있던 정조의 예필(睿筆)과 예제를 엮은 2첩으로, 모두 13첩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정조가 홍봉한에게 보낸 예찰과 어찰을 엮은 4첩과 홍낙신·홍후영에게 보낸 예찰과 어찰 등을 엮은 5첩으로 모두 9첩은 조사되어 발표되었다.<sup>8)</sup>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과 관련된 것으로는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에 66건의 편지가 있는데 외삼촌인 홍낙임(洪樂任, 1741~1801)에게 보낸 것과 심환지(沈煥之, 1730~1802)에게 보낸 것이다. 이중 홍낙임에게 보낸 편지는 상·하 두 첩으로 되어 있다. 상첩은 정조 23년(1799) 8월 7일에서 9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24건이고, 하첩은 정조 24년(1800)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씌어진 12건이다. 정조가 홍낙임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살았던 마을 이름을 따서 봉투에 ‘번리집사(樊里執事)’라고 썼기 때문에 ‘번리어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번리어찰에는 두보(杜甫)와 육유(陸游)의 시를 각각 5백수씩 뽑아 만든 『두륙천선(杜陸千選)』 및 외할아버지 홍봉한 익정공(翼靖公)의 실기와 『유집(遺集)』의 편집과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 심환지에게 보낸 『삼청동어찰』은 당시의 정치적 현안들을 용의주도하게 조정하며 정국을 이끌어 가고자 했던 국왕 정조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sup>9)</sup>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기탁된 2종의 정조 어찰첩(류성권 소장)이 있는데, 하나는 정조가 세손시절 영조 48년(1772) 1월 2일부터 동년 5월 24일 사이에 외조부인 홍봉한에게 보낸 37건이고, 다른 하나는 정조 23년(1799) 10월 3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 23건과 오연율시 1수이다.<sup>10)</sup>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국립중앙박물관본(이하 국박본이라 칭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이하 장서각본이라 칭함)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적의 편집 간행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서윤희(2009)의 연구는 책의 편집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그쳤고,<sup>11)</sup> 김덕수(2013)의 연구는 『송사』의 개수와 『송사전』의 내용 및 『익정공주고』의 편찬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7)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편, 『영·정조시대 풍산홍씨가 유물기증전』 (서울: 동박물관, 2009), 63.  
 8) 구순옥, “외조부 홍봉한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 야마구치[山口]현립도서관 소장본,” 『고전번역연구』 8(2017), 193-194.  
 9) 서윤희, “편지글에 나타난 정조의 정국운영과 인간적 풍모,”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269.  
 10) 김덕수, “『정조어찰첩』을 통해서 본 정조의 서적 편찬 활동,”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3), 18.  
 11) 서윤희, “편지글에 나타난 정조의 정국운영과 인간적 풍모,”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281-282.

다루었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정조조에 편찬·간행(이하 편간으로 칭함)된 어정서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하고, 어정서 중 두보와 육유의 시 선집 및 주자의 개인문집 선집에 있어서<sup>13)</sup>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에 언급된 편간 및 반사 과정에 관한 내용과 실제 편간 및 반사와 관련된 다른 문헌의 관련 기록 및 현존본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정조가 편간 및 반사한 어정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 2. 정조의 어정서 편찬과 간행

정조조에 편간된 어정서(御定書)는 왕명으로 이루어진 명찬서(命撰書)를 일컫는다. 어정서의 성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 직접 선정해서 신하에게 편집을 일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직접 편집하고 교수(校讎)를 일임한 것이다. 따라서 어정서의 의미는 어선(御選)과 어편(御編)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의 어정서는 어선 20종, 어편 10편이 편찬·간행되었다.<sup>14)</sup>

어선 20종은 정조가 직접 선집한 책들인데, 경학(經學) 및 역사(歷史), 성리학(性理學)은 학문진작의 일환으로, 시문선은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정조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육경(六經)을 중주로 하고, 자(子)·사(史)를 우익(羽翼)으로 하여 위아래를 포괄하고 지금과 옛날을 널리 통달하되, 마지막에는 주자(朱子)의 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이야야 그 내용이 순정(醇正)하여 도술(道術)에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곳이 없게 된다.”<sup>15)</sup> 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많은 고전을 모두 섭렵할 수 없으므로 이 중에서 꼭 학자들이 읽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만 선집한 것이다.

학문진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경학, 역사, 성리학 분야의 11종이 선집되었다.

첫째, 경학 분야에서는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 5권, 『어정추서경선(御定鄒書敬選)』 1권, 『어정대학류의(御定大學類義)』 20권이 선집되었다.

12) 김덕수, “『정조어찰첩』을 통해서 본 정조의 서적 편찬 활동,”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3), 18-34.

13) 본 연구에서 어정서 중 두보와 육유의 시 선집 및 주자의 개인문집 선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 중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은 제외하였다.

14) 姜順愛, “奎章閣의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47-60.을 참조하여 어선 20종, 어편 10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간략 서술하였다.

15)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163권 90책 『일득록(日得錄)』 文學 3, 11.

“嘗教諸閣臣曰。文章有道有術。道不可以不正。術不可以不慎。學文者。當宗主六經。羽翼子史。包括上下。博極今古。而卒之會極於朱子書。然後其辭醇正。而道術庶幾不差誤”

둘째, 역사와 그 관련 분야에서는 『어정사기영선(御定史記英選)』 6권, 『어정육주약선(御定陸奏約選)』 2권, 『어정감자(御定監茲)』 1권이 선집되었다.

셋째, 성리학 분야에서는 『어정성학집략(御定聖學輯略)』 6권, 『어정경설고(御定瓊屑糕)』 1권, 『어정주자선통(御定朱子選統)』 3권,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6권, 『어정주자서절약(御定朱子書節約)』 20권이 선집되었다.

문체반정의 일환으로 시문집 분야의 자료들이 9종 선정되었다. 시는 두보, 육유, 주자의 개인문집과 시가(詩家) 중에서 선집이 이루어졌고, 문장은 당송팔대가를 선집하고, 송독에 도움이 되는 수필형식의 글을 엮었으며, 경사백가(經史百家)의 것을 함께 선집하여 묶었다.

첫째, 시는 두보, 육유, 주자의 개인문집과 시가 중에서 선집이 이루어졌다. 『어정두율분운(御定杜律分韻)』 5권, 『어정육률분운(御定陸律分韻)』 39권, 『어정두륙천선(御定杜陸千選)』 8권, 『어정아송(御定雅誦)』 8권, 『어정시관(御定詩觀)』 560권, 『어정율영(御定律英)』 4권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문장은 당송팔대가의 선집과 송독에 도움이 되는 수필형식의 글을 엮었다. 『어정팔자백선(御定八子百選)』 6권과 『어정고시(御定顧諟)』 1권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경(經), 사(史), 백가(百家) 외의 것을 함께 선집하여 묶은 『어정사부수권(御定四部手圈)』이 있다. 이 책은 삼례(三禮)와 『사기(史記)』·『한서(漢書)』, 송나라 5가(五家)의 책, 당나라 육지(陸贄)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글을 가져다가 매일같이 돌려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손수 권점(圈點)을 쳤다. 그리고는 규장각의 관원들에게 명하여 나누어 베끼게 하고 30권으로 편찬한 다음 『사부수권』이라 하였다.<sup>16)</sup>

어떤 10종은 계지술사(繼志述事)를 위한 것이 9종이고, 문체반정을 위한 것이 1종이다. 이들 어떤서는 책수가 많은 경우 그 시대의 시각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미비한 분야는 새로이 정비하는 형태로 편간이 이루어졌다. 계지술사의 면에서 역사계통을 비롯한 유가류와 음악 분야 및 문체반정의 서적이 출간되었다.

계지술사를 위한 것은 역사계통 분야 자료가 6종, 유가류 2종, 음악 분야 1종이 엮어졌다.

첫째, 역사계통 분야는 유교질서의 토대 위에서 왕권을 강화하여 존송하게 하고 그 왕권의 호위에 필요한 양병의 제도를 정비하는 데 치중하였다. 정사의 『어정송사진(御定宋史筌)』 150권, 잡서류에 속하는 『어정갱장록(御定羹牆錄)』 8권, 보계(譜系) 성격의 참고자료인 『어정역대행표(御定歷代行表)』 6권, 군사 관계의 서적인 『어정삼군총고(御定三軍總攷)』 10권과 『어정군려대성(御定軍旅大成)』 5권, 지리류 중 사찰의 참고자료인 『어정범우고(御定梵宇攷)』 1권이 이루어졌다.

둘째, 유가류는 『어정향례합편(御定鄉禮合編)』 3권과 『어정주공서(御定周公書)』 9권이 이루어졌다.

16) 『정조실록(正祖實錄)』 50권, 정조 22년(1798) 11월 30일(기축) 6번째 기사.

“○《四部手圈》, 成。上, 取《三禮》、《史記》、《漢書》、宋五子書、唐陸贄、唐·宋八大家文, 課日輪讀, 遇契意, 手加圈批。命內閣諸臣分贍, 彙成三十卷, 命名《四部手圈》。”

정조가 흥낙임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어정서 편찬·간행 및 반사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셋째, 음악 분야는 『어정악통(御定樂通)』 1권이 편집되었다.

문체반정의 측면에서 국초부터 내려온 관각(館閣) 문자를 모아 편간한 것은 『어정문원보불(御定文苑黼黻)』 42권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조에 편간된 어정서 30종을 서명, 편찬연도, 간행연도, 판본, 편찬간행자로 종합하여 <표 1><sup>17)</sup>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조조 편찬·간행 어정서

번호	서명	편찬연도	간행연도	판본	편찬간행자
1	御定宋史筌 150권	정조 4년(1780) 정조 15년(1791) 繕寫對校	미간	사본	정조 편, 규장각 재편, 관학유생 선사대교
2	御定瓊屑糕 1권	정조 5년(1781)	미간	사본	정조 선, 내각대교 서영보 대교
3	御定朱子選統 3권	정조 5년(1781)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4	御定聖學輯略 6권	정조 5년(1781)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5	御定八子百選 6권	정조 5년(1781)	정조 5년(1781)	정유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교서관 간, 규장각 번각장판
6	御定羹牆錄 8권	정조 9년(1786)	정조 10년(1786)	정유자본	정조 편, 편찬담: 李福源 담원: 趙琰, 鄭昌聖, 洪良浩, 徐浩修, 尹耆東, 金尙集, 李家煥, 安廷 鉉, 李延伋 분편 편차 교정: 尹耆東, 金尙集, 安廷鉉, 李延伋 감인: 尹耆東, 金尙集, 安廷鉉, 柳弘之, 李德懋, 朴齊家
7	御定文苑黼黻 42권	정조 9년(1786)	정조 11년(1787)	제주한구자본	정조 편, 내각대교 李崑秀 교정
8	御定樂通 1권	정조 15년(1791)	미간	사본	정조 편
9	御定詩觀 560권	정조 16년(1792)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10	御定朱書百選 6권	정조 18년(1794)	정조 18년(1794)	정유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주자소 간
11	御定軍旅大成 5권	정조 19년(1795)	미간	사본	정조 편
12	御定三軍總攷 10권	정조 19년(1795)	미간	사본	정조 편
13	御定歷代行表 6권	정조 20년(1796)	미간	사본	정조 편
14	御定史記英選 6권	정조 20년(1796)	정조 20년(1796)	정유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주자소 간
15	御定五經百選 5권	정조 18년-20년 (1794-96)	정조 22년(1798)	목판본	정조 선, 규장각 精加校準, 영남의 啓書 營吏 繕寫, 道內儒生 考校, 주자소 간
16	御定鄉禮合編 3권	정조 21년(1797)	정조 21년(1797)	정유자본	정조 편, 편찬담: 李秉模, 尹耆東, 閔鍾 顯, 沈煥之, 徐龍輔, 李始源, 徐有渠, 崔 光泰, 黃基天, 주자소 간
17	御定六奏約選 2권	정조 21년(1797)	정조 21년(1797)	정유자본	정조 편, 각신 徐有渠 편교, 주자소 간
18	御定鄒書敬選 1권	정조 21년(1797)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17) 위의 <표 1>은 『군서표기(群書標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실물조사 및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  
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58-60.을 참조하여 재구성되었다.

번호	서명	편찬연도	간행연도	판본	편찬간행자
19	御定四部手圈 25권	정조 22년(1798)	순조 1년(1801)	목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20	御定陸律分韻 39권	정조 22년(1798)	정조 22년(1798)	정리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각신 李晩秀, 沈象奎 대교
21	御定杜律分韻 5권	정조 22년(1798)	정조 22년(1798)	정리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각신 李晩秀, 沈象奎 대교
22	御定大學類義 20권	정조 5년-11년 (1781-1787) 三校 정조 23년(1799) 重校	순조 5년(1805)	정리자본	정조조: 정조 선, 鈔寫: 초계문신, 分任初校: 내 각 및 근밀제신, 會同再校: 嶺南 經義功令生, 三校編成: 초계문신 徐滢修, 尹光顏 순조조 교열: 李晩秀, 金近淳, 金履永, 洪奭周, 金啓溫, 감인: 徐榮輔, 朴宗慶, 沈象奎, 洪奭周, 朴宗薰
23	御定雅誦 8권	정조 23년(1799)	정조 23년(1799)	입진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주자소 간
24	御定杜陸千選 8권	정조 23년(1799)	정조 23년(1799)	정유자본	정조 선, 규장각 편
25	御定顧諟 1권	정조 23년(1799)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26	御定律英 4권	정조 23년(1799)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27	御定監茲 1권	정조 23년(1799)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28	御定梵字攷 1권	정조 23년(1799)	미간	사본	정조 선, 규장각 편
29	御定周公書 9권	정조 24년(1800)	미간	사본	정조 편, 각신 李晩秀, 沈象奎, 초계문신 徐滢修, 洪奭周 분편 교정
30	御定朱子書節約 20권	정조 24년(1800)	미간	사본	정조 선, 湖南經工生 편, 각신 徐有集 訂正

### 3. 어찰에 나타난 어정서 편찬·간행 및 반사 내용과 관련 기록

정조가 흥낙임에게 보낸 어찰에는 두보, 육유 및 주자 저술의 선집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다. 어찰의 기록과 상관관계에 있는 기록들은 『군서표기(群書標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일성록(日省錄)』, 『내각일력(內閣日曆)』, 현존본 기록 등이다.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두보(杜甫)와 육유(陸游)의 시 선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는 두보, 육유 및 주자의 개인문집과 시가 중에서 선집을 했는데, 『어정두율분운(御定杜律分韻)』 5권, 『어정육률분운(御定陸律分韻)』 39권, 『어정두륙천선(御定杜陸千選)』 8권이였다.

### 3.1.1 『어정두율분운』과 『어정육률분운』

정조 23년(1799) 홍낙임에게 보낸 8월 11일 어찰에는 “나는 여름 석 달 동안 두율(杜律) 777수, 육률(陸律) 4,877수 등을 공부했습니다.”라고 하여<sup>18)</sup> 『어정두율분운』과 『어정육률분운』에 대해서는 간략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정조가 『어정두율분운』과 『어정육률분운』을 선집하려는 것은 당시의 시교(詩敎)가 느슨해져서 『시경(詩經)』 300편의 유의(遺意)를 후세에서 찾아본다면 오직 두보와 육유가 거기에 가까운데 율(律)은 더욱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이문원(摛文院), 고문관(考文館), 창경궁(昌慶宮)의 홍문관(弘文館)에 모여서 교정하는 일을 분담하고 운에 따라 편집하게 하였으니, 이는 시속(時俗)을 바로잡으려는 것에 있었다.<sup>19)</sup>

『어정두율분운』 5권과 『어정육률분운』 39권은 정조 22년(1798) 7월 갑신에 완성하였다. 전자는 두보의 시 중 5언 626수, 7언 151수 합 777수를 선정하여 운으로 분류하여 총 5권으로 하였으며, 후자는 육방옹(陸放翁)의 시 중 5언 1,986수, 7언 2,891수 합 4,877수를 선정하여 운으로 분류 39권으로 편집하였다. 이들 서적은 각신 이만수(李晩秀), 심상규(沈象奎) 등이 대교하여 정리자로 인반(印頒)하였다.<sup>20)</sup>

『어정두율분운』 5권과 『어정육률분운』 39권의 반사와 사급에 대해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조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고에 각 50건, 내각에 각 3건, 옥당과 춘방에 각 2건, 존경각에 각 1건, 다섯 곳의 사고와 외규장각에 각 1건을 반사하였다.<sup>21)</sup>

둘째, 원임제학인 관중추부사 채제공, 봉조하 김종수, 원임 직제학인 관중추부사 김희, 우의정 이병모, 검교제학 정민시·심환지, 원임직제학 서호수·서유방·서정수·김재찬·서용보·정대용, 원임 직각 김면주·윤행임·서영보·남공철·이시원, 원임대교 이준수, 감인한 각신인 검교직제학 이만수, 원임 직각 김조순, 검교대교 심상규·서유구, 행대호군 정범조, 행도승지 조진관, 교정한 문신 이서구·한만유·목만중, 감인한 초계문신 김근순·권준·신현·조석중·홍석주·황기천·

18) 정조, “정조 23년 8월 11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4-17.

“... 此中三夏工夫 ... 杜律七百七十七首 陸律四千八百七十七首 ...”

19)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予嘗以爲詩敎弛 而求三百篇 遺意於後世 則惟杜甫陸游近之律 尤其聖也 命諸臣集于摛文院考文館昌慶宮弘文館 分掌釐校 以韻類編 蓋欲砭俗矯時也.”

20) 奎章閣 編,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163-165.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杜凡七百七十七首 陸凡四千八百七十五首 用生字刊印.”

위의 『군서표기(群書標記)』에는 정리자로, 『일성록(日省錄)』에는 생생자로 되어 있어 기록의 차이가 있다. 실물을 확인하면 정리자인본에 해당하므로 『군서표기』의 기록이 맞다.

21)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敎曰杜律分韻 陸律分韻西庫各五十件內閣各三件玉堂 春坊各二件尊經閣各一件五處史庫外奎章閣各一件.”

김이영에게 『어정두울분운』과 『어정육률분운』을 각각 1건씩 반사하였다.<sup>22)</sup>

셋째, 두울을 교정한 문신 정약용·이상황·이유수·정약전·김희주·송지렴·김이교·김이재·조만원·강준흠·홍낙준·송면재, 시임 초계문신 이면승·유태좌·유원명·구득로·김희락·홍명주·이동만·엄기·이영발·김계온에게 각각 『어정두울분운』 1건을 반사하였다.<sup>23)</sup>

넷째, 육률을 교정한 문신 김희화·서준보·김치암에게 각각 『어정육률분운』 1건을 반사하였다.<sup>24)</sup>

다섯째, 두울과 육률을 인역(印役)할 때 감인한 신하인 검교직제학 이만수, 원임 직각 김조순, 검교대교 심상규, 초계문신 김근순·권준·신현·조석중·홍석주·황기천·김이영에게 각각 1건을 추첨해서 사급하였다.<sup>25)</sup>

여섯째, 두울과 육률을 인역할 때 간역(看役)한 신하인 감관 유명표에게 대내에서 내린 호초(胡椒) 후추 1말과 저(苧; 모시) 1필을, 서리 유상호 등 2인에게 각각 목(木; 무명) 1필을, 대청지기[大廳直] 임성득 등 2명에게 각각 목 1필과 미(米) 2말을, 사령 김상옥 등 2명에게 각각 포(布) 1필을, 방지기[房直] 채돌에게 미 2말을, 군사 은손 등 3명에게 각각 미 2말을 주었다. 목과 포는 병조에서 내주고, 미는 대내에서 내렸다. 차지창준(次知唱準) 김택려 등 2인에게 각각 대내에서 내린 저 1필과 미 2말을, 교정한 창준 조영 등 3인에게 각각 대내에서 내린 저 1필을, 분류한 창준 유후택 등 5인에게 각각 대내에서 내린 석새[三升; 석새삼배] 1필을, 보자관 정완철에게 대내에서 내린 석새 1필과 미 2말을, 수장한 채원 이세정 등 9명에게 각각 목 1필을, 책장 김인대 등 9명 중 3명에게 각각 목과 포 1필을, 6명에게는 각각 목 1필과 미 2말을, 인출장 최복한 등 6명에게 각각 목 1필과 미 2말을, 균자장 임대복 등 7명에게 각각 목 1필을, 사인출장 정치복 등 4명에게 각각 목과 포 1필을, 균자장 김치복 등 3명에게 각각 목 1필을, 책장 안해득 등 2명에게 각각 목 1필과 미 2말을, 각수 유탉룡 등 2명에게 각각 목 1필을, 소목장 김만재와 다회장 손늬[孫老味]에게 각각 포 1필을, 사환군 1명에게 미 3말을 주었다. 이상 저 5필, 석새 6필, 미는 대내에서 내리고 목과 포는 병조에서 사급하였다.<sup>26)</sup>

22)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原任提學 判府事 蔡濟恭 奉朝賀 金鍾秀 原任直提學 判府事 金憲 右議政 李秉模 檢校提學 鄭民始 沈煥之 原任直提學 徐浩修 徐有防 徐鼎修 金載瓚 徐龍輔 鄭大容 原任直閣 金勉柱 尹行恁 徐榮輔 南公轍 李始源 原任待教 李存秀 監印閣臣 檢校直提學 李晚秀 原任直閣 金祖淳 檢校待教 沈象奎 徐有渠 行大護軍 丁範祖 行都承旨 趙鎮寬 校正文臣 李書九 韓晚裕 陸萬中 監印抄啓文臣 金近淳 權峻 申絢 曹錫中 洪奭周 黃基天 金履永 各杜律分韻 陸律分韻各一件.”

23)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杜律校正文臣 丁若鏞 李相瓚 李儒修 丁若銓 金熙周 宋知濂 金履喬 金履載 趙萬元 姜浚欽 洪樂浚 宋冕載 時抄啓文臣 李勉昇 柳台佐 柳遠鳴 具得魯 金熙洛 洪命周 李東萬 嚴耆 李英發 金啓溫 各杜律分韻一件.”

24)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陸律校正文臣 金熙華 徐浚輔 金處巖 各陸律分韻 一件賜給.”

25)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杜律 陸律印役時 監印檢校直提學 李晚秀 原任直閣 金祖淳 檢校待教 沈象奎 抄啓文臣 金近淳 權峻 申絢 曹錫中 洪奭周 黃基天 金履永 各抽籤一件.”

26)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  
 “看役監官 柳明杓 內下胡椒一斗 苧一匹 書吏劉相祐等二人各木一匹 大廳直林聖得等二名各木一匹 米二斗 使

### 3.1.2 『어정두록천선』

『어정두율분운』 5권과 『어정육률분운』 39권의 편간이 끝난 뒤에 『어정두록천선』 8권의 선집이 시작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조의 어찰에 잘 나타나 있다.

정조 23년(1799) 8월 11일 어찰에 의하면,

“... 나는 여름 석 달 동안 ... 두율(杜律) 777수, 육률(陸律) 4,877수 등을 공부했습니다. ... 두율과 육률은 죽 읽고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여러 번 보았으니 이제는 천수를 뽑아두고 늘그막의 불거리로 삼으려 하여 아울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향할 바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두율은 오히려 작업하기가 쉬우나 육률의 좋은 것은 혹 소품에 가깝기 때문에 취사선택하기가 지극히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좌상 이병모와 문형 홍양호가 육유의 시를 꽤 공부했다고 하지만 지금 누가 왕복하며 내 뜻과 맞겠습니까? 집사(홍낙임)에게 문의하러 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한 것과 동그라미 둘 한 것은 내가 취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쌍접한 것은 생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와 접을 막론하고 집사의 의견대로 별지의 요령에 따라 첩지를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인편을 보내겠습니다. 육유의 칠언율시와 두보의 오언과 칠언도 차례로 보낼 것입니다. ... ”라고 하였다.<sup>27)</sup>

위 어찰에 의하면, 정조는 『어정두록천선』의 선집 작업에 있어서 자신의 초고에 대한 질정을 외삼촌인 홍낙임에게 부탁해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8월 12일 아침 어찰에서, 정조는 홍낙임에게 두율을 오백 수 한도 내에 의견을 첨지하여 들여보내도록 지시하고 언제 마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보는 시성(詩聖)이라 그의 시를 취사선택하기가 갑절이나 어려우므로 이 뜻을 잘 알아 힘을 다하여 진력하라고 독려했다. 한편 일의 진행을 돕기 위해 홍낙임이 두율을 보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베끼는 일은 이학우(李學愚)를 궁에서 내보내서 필사를 돕도록 하였다.<sup>28)</sup>

令金相郁等二名 各布一匹 房直再夏米二斗 軍士銀孫等三名各米二斗 木布兵曹 米內下 次知唱準金澤麗等二人 各內下苧一匹米二斗 校正唱準趙穎等三人 各內下苧一匹 分類唱準劉厚澤等五人各內下三升一匹 補字官鄭完喆 內下三升一匹米二斗 守穢諸員李世徵等九名 各木一匹 册匠金仁大等九名內三名 各木布一匹 六名各木一匹米二斗 印出匠崔福漢等六名 各木一匹米二斗 均字匠任大福等七名 各木一匹 私印出匠鄭致福等四名 各木布一匹 均字匠金致福等三名各木一匹 册匠安海得等二名 各木一匹米二斗 刻手劉澤龍等二名 各木一匹 小木匠金萬載 多繪匠孫老味 各布一匹 使喚軍一名 米三斗 以上苧五匹三升六匹米內下 木布兵曹 賜給.”

27) 정조, “정조 23년 8월 11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4-17.  
“... 此中三夏工夫 ... 杜律七百七十七首 陸律四千八百七十七首 ... 杜陸律則周而復始 閱之屢遍 今欲限千選置 欲爲老來遮之物 兼使世之人知所趨向 選之極難 杜猶易爲力 陸之佳處 或近於所品 所以至難至難於取捨 近聞左相文衡 頗有工程於陸詩 今誰往復 而疑惑可合 不得不就質於執事 圈與雙圈 吾以爲加取者 雙點則在於叩推中者 無論圈與點 以意見付籤紙 依則別紙爲之如何 明曉當送便 而七律與杜之五七 亦當隣次送呈耳 ...”

28) 정조, “정조 23년 8월 12일 아침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18-21.  
“... 杜律限五百首 亦以意見標籤入送 如何如何 何日間當畢看耶 亦於此回詳答爲望 ... 況杜是詩之聖者 其所取捨 倍置難慎知此意 極力鼓推 如何如何 ... 李學愚日前招來 試其筆 聞之耶 適有書役 待紙本出送 卽爲書送 而凡例則問于愚也可知 書手 當爲幾人耶 亦卽詳答 如何如何 執事則潛心看過於杜律 切勿移心於書役 如何如何 ...”

8월 12일 점심 어찰에서, 정조는 육률을 다시 보아 오백 수를 채우고 홍낙임에게 보내서 두율에 준해 표첩하여 내일(8월 13일) 들여보내라고 부탁하였다. 동그라미 2개가 300수, 동그라미 1개가 200수인 것을 예로 삼아 오언시가 200수, 칠언시가 100수면 되느냐고 물었다.<sup>29)</sup>

8월 13일 어찰에서, 정조는 육옹의 칠언시 선집을 완성하여 좌상 이병모에게 먼저 보내고, 그것이 돌아오면 내일쯤(8월 14일) 홍낙임에게 보내겠다고 하였고, 두시의 권점 표점 작업을 마쳤으면 이 하인[隸]편으로 부칠 것을 부탁하였다.<sup>30)</sup>

8월 14일 어찰에서, “재소(齋所)에서 육선(陸選)을 가져와 보며 교정하고 있는데 좌상(이병모)에게 보냈던 것이 마침 들어와, 우선 두 권을 부쳐 보냅니다. 나머지 한 권도 내일 추가로 보낼 것이니, 모래쭙 내가 보내는 사람 편으로 모두 돌려보내길 바랍니다. 두시와 육시를 각각 삼백여 수씩 뽑는 것은 실로 좋습니다. 다만 졸렬함을 감추는 데는 각각 오백 수씩 뽑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육시 칠언을 보고 다시 생각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하였다.<sup>31)</sup>

8월 15일 아침 어찰에서, 방옹(放翁)의 칠언율시 한 편을 또 보내드리는데 제목 아래 연한 황색 동그라미(黃圈)는 좌상의 침(籤)입니다. 두로(杜老)의 오언, 칠언을 취사선택한 것과 비교하여 두 사람의 안목 중 누가 과연 나은지요? 자주색 동그라미는 문형(文衡; 대제학)이 그린 것입니다. 시 오백 수와 삼백 수 사이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보와 육유 각각 오백 수씩 뽑기로 결정하였다.<sup>32)</sup>

8월 15일 아침 어찰 별지에서, 지금 두보와 육유의 시를 각각 오백 수씩 뽑기로 정하고 책제목을 『두륙천선』이라고 정하였다. 두보와 육옹의 충의와 격분이 읊은 시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한갓 시가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물며 지금 소려(小呂)가 성행하는 때에, 그 시들이 표현하여 밝히는 바가 세교(世教)와 문풍(文風)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sup>33)</sup>

8월 18일 어찰에서, 정조는 홍낙임과 『두륙천선』을 함께 하는 작업의 기쁨과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29) 정조, “정조 23년 8월 12일 저녁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22-23.  
“… 陸律今方更闕 滿五百至難 然即杜亦視此相準 明日標籤入送也 雙圈三百單圈二百爲例 五爲二百 七爲一百 爲可耶 ….”

30) 정조, “정조 23년 8월 13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24-25.  
“… 杜老陸翁詩考閱 而陸之七言 今始竣工 先送左相許 蓋左於陸有癖好也 待其還來 明間當送呈耳 杜詩如已 畢圈 付此隸如何 ….”

31) 정조, “정조 23년 8월 14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26-29.  
“… 齋所甚從容 陸善持來考校 左相許所送者 適又入來 先以二卷付禱 餘一卷明當追呈 再明間待此送入便 并 爲還付如何 杜陸各選三百餘固佳 但藏拙之方 莫若各五百之爲勝也 更看陸七詳教 如何如何 ….”

32) 정조, “정조 23년 8월 15일 아침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30-33.  
“… 放翁七律一篇 又此付呈 而題下軟黃圈 左相籤也 比之杜老五七取捨 兩人眼目 以爲孰果勝似 紫圈文衡筆 耳 五百與三百之間 所示誠然 今則以各五百決定 ….”

33) 정조, “정조 23년 8월 15일 오후 어찰 별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34-35.  
“… 今則杜陸定以各選五百 命其名曰杜陸千選. … 大抵杜老陸翁之忠憤 荷於吟咏之間 不可徒歸詩家者流 況今 小呂盛行之時 其所表章 有關世教文風云耳 ….”

“두보와 육유의 오언시와 칠언시를 감상하도록 다시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은 집사를指南(指南; 안내자)으로 삼아서 산을 유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산(廬山; 중국 강소성 구강시 남쪽 양자강가에 솟은 명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기 어렵고, 게다가 편지로 주고받는 사연은 직접 마주보고 토론하는 것보다 다른데, 집사와 나는 토론하지 않고도 의사가 일치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집사는 만년에 회심의 글벗 하나를 얻었고 나 또한 집사에 대하여 ‘하필이면 후세의 자운(子雲; 漢의 揚雄을 이름)과 요부(堯夫; 宋의 邵雍을 이름)를 기다리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초당(草堂; 杜甫를 이름)과 화계(花溪; 陸游를 이름)의 시에 부지런하고 열성적인 것은 그 성물을 취하려 함이 아니며 그 수사(修辭)를 숭상함이 아닙니다. 서곤체(西崑體; 중국 송나라 초기 楊億, 劉筠, 錢惟演 등의 전고가 많고 미사여구를 쓰던 시체)의 아첨과 속됨을 씻고, 남풍(南風; 舜임금이 지었다고 하는 중국의 고대 음악)의 온화함과 아름다움을 유행시키는 것이 이 하나의 편집 작업에 달려 있으나 속인들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집사만이 이 일을 즐거이 도와 날마다 끊임없이 심부름꾼을 보내도 전혀 피로함이 없으니, 마치 물소의 두 뿔처럼 신통하게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라고 하였다.<sup>34)</sup>

위의 어찰을 보면, 정조는 『두류천선』의 선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 홍낙임과 마음이 매우 일치하고 있으며, 두보와 육유의 시의 선정 작업은 그 성물과 수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곤체의 아첨과 속됨을 피하고 남풍의 온화함과 아름다움을 유행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8월 22일 저녁 어찰에서, 정조는 두보의 오언시를 이제 비로소 정리하였다고 하였다. 정조 자신의 작업이 착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버린 것 중에도 취할만한 것에는 첨을 붙이되 한결같이 청침(靑籤)의 예에 따라 숫자가 차지 않을 때에는 집사의 의견에 따라 두거나 뺄 수 있도록 하였다. 백침(白籤)에 홍권(紅圈)이 있거나 없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모레쯤 이 3권을 들여보내 편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운데 버릴 만한 것도 일일이 기록하여 보내도록 하였다.<sup>35)</sup>

이렇게 완성된 『어정두류천선』 8권은 두보시 5언·7언 500수와 육유의 시 5언·7언 500수의 도합 1,000수를 뽑아 규장각으로 하여금 최종 편집하게 하였으며 주자소에서 정유자로 인반하였다.<sup>36)</sup> 그해 12월 23일의 편지에는 『두류천선』 당지본(唐紙本)에 정조의 ‘萬川明月主人翁’과 ‘蕩蕩平平平蕩蕩’이라는 도장을 찍어 홍낙임에게 특별히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인다.<sup>37)</sup>

이 책의 반사에 대해서는 『일성록』 정조 23년(1799) 12월 28일(신해) 기사와 『내각일력』 정조 23년 12월 28일<sup>38)</sup>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기록이 같아서 『일성록』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정조, “정조 23년 8월 18일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40-43.  
 “… 杜陸五七 更此塵賞 蓋欲以執事爲指南 俾遊山者 得見廬山眞面耳 人見既難於相符 書辭又異於對討 而意思暗契處 不爲不多於是乎 執事晚年得一會心之文朋 而吾於執事 亦云 何必待後世子雲堯夫耶 … 區區所以矻矻孜孜於草堂花溪之詩者 非取其聲病之間也 非尙其雕繪之際也 蕩西崑之脂韋 流南風之薰微 在此述之一着而難於俗人道也 惟執事樂爲之助 日日絲絡之伴 頓失疲勞 靈犀相通 不其然乎 …”  
 35) 정조, “정조 23년 8월 22일 저녁 어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50-51.  
 “… 杜五今始厘正 所取捨者 亦安知一一無錯 雖於抹去中 可取者付籤 而一從靑籤爲例 若有未充數者 以備盛見之存拔 而白籤之紅圈或無圈 姑未決定者耳 再明間先以次三卷入送 以爲割付之地 而其中可拔者 亦爲一一錄送如何 …”  
 36) 규장각 편,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4 (서울: 學文閣, 1970), 202-206.  
 37) 정조, “정조 23년 12월 23일 어찰,” 『정조어찰집』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214-215.  
 “… 杜陸千選唐紙本 印我萬川明月蕩蕩平平之章 茲又呈上 …”

첫째, 주합루에 1건, 서고에 50건, 화성행궁에 3건, 내각·홍문관·춘방에 각 2건, 외규장각과 사고 5개소와 외각에 각 1건, 존경각에 2건, 서원 14개처에 각 1건을 반사하였다.<sup>39)</sup>

둘째, 원임 직제학인 영중추부사 김희, 검교제학 정민시, 원임 직제학 서용보·정대용, 원임 직각 김면주·서영보·남공철·윤행임, 검교직각 심상규, 직각 김근순, 검교대교 이준수, 원임 대교 서유구, 대제학 홍양호, 초계문신 이면승·황기천·조석중·신현·홍명주·구득로·이영발·김희락·강준흠·유태좌·김이재·이홍겸·홍석주·김계은, 구조계 문신 이익운·이면공·홍의호·정약용·김희순·이조원·이노춘, 전 제학 정범조, 승지 이상도, 전 참의 목만중, 전 부사 성대중, 요속 정일환·유한준·신대우·박종우, 겸 검서관 유득공·박제가 검서관 이신모·이옥수·김기보·유본학, 전 검서관 이광규에게 각 1건을 반포하였다.<sup>40)</sup>

### 3.2 주자의 개인문집 선집

정조는 주자의 개인 문집에서 시문을 선집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정조 23년 9월 25일 어찰에 들어 있는 『아송책(雅誦策)』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선비가 되려면 주자의 시를 배우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주자의 시를 길게 뽑아 읊조리며 감탄할 때 모두 얻는 바가 있어, 마음의 찌꺼기를 녹여 없애고 혈맥을 생동하게 하여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성실한 마음이 자연히 생기고 거짓되고, 나태하고, 거만한 마음이 생길 수 없어, 가까이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다. 이 시에서 감흥을 받을 수 있고, 이 시에서 득실을 살필 수 있고, 이 시에서 어울릴 수 있어 선왕의 시교(詩敎)를 만에 하나라도 엿볼 수 있다. 내가 그리하여 주자의 시를 편집하여 학관에 진열하고 법례를 세울 때 각기 본받은 것이 있다. 모아서 가려 뽑은 것은 산경(刪經)을 본 뜬 것이고, 유별로 모은 것은 풍(風)과 아(雅)의 편을 나눈 것을 본뜬 것이며, 명(銘)과 찬(贊)을 붙인 것은 삼송(三頌; 周頌, 魯頌, 商頌)을 뒤에 붙인 것을 본뜬 것이며, 『아송』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성인의 아언(雅言)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sup>41)</sup>

38)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3년(1799) 12월 28일(신해) 기사.

39)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2월 28일(신해) 기사.

“頒新印御定杜陸千選 予選杜律五七言五百首 陸律五七言五百首 凡八編 名之曰杜陸千選 鑄字所印進 敎曰御定杜陸千選 宙合樓一件 西庫五十件 華城行宮三件 內閣 弘文館 春坊各二件 外奎章閣 五處史庫 外閣 各一件 尊經閣二件 書院十四處 各一件.”

40)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2월 28일(신해) 기사.

“原任直提學 領府事 金憲 檢校提學 鄭民始原任直提學 徐龍輔 鄭大容原任直閣 金勉柱 徐榮輔 南公轍 尹行恁 檢校直閣 沈象奎 直閣 金近淳 檢校待敎 李存秀原任待敎 徐有渠 大提學 洪良浩 抄啓文臣 李勉昇 黃基天 曹錫中 申絢 洪命周 具得魯 李英發 金熙洛 姜浚欽 柳台佐 金履載 李弘謙 洪奭周 金啓溫舊抄啓文臣 李益運 李勉兢 洪義浩 丁若鏞 金義淳 李肇源 李魯春前提學 丁範祖 承旨 李尙度前參議 睦萬中前府使 成大中僚屬 鄭日煥 俞漢雋 申大羽 朴宗羽 兼檢書官 柳得恭 朴齊家 檢書官 李薰模 李旭秀 金基普 柳本學前檢書官 李光葵各頒一件.”

41) 정조, “정조 23년 9월 25일 어찰 『아송책(雅頌策)』”,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방박물관, 2009), 82-95.

“… 有今之時 造今之士 莫如學夫子之詩 而咸有所得於詠歎淫液之際 消融渣滓 動盪血脉 易直子諒之心 油然而生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조가 주자의 시를 가려 뽑아 『아송』을 선집한 것은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의 찌꺼기를 없애고 순정한 유학자로 만들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다.

주자의 시어는 장중하고 엄숙하며 그 뜻은 간결하면서도 심오하여 성찰할 때는 조용하고 말할 때는 아름다워, 비유하자면 마치 순임금의 전당에서 소음(韶音; 순임금 시대의 음악)을 연주할 때에 오직 승가(升歌; 제사나 연회 때 주재자가 당에 올라갈 때 연주하는 음악)만 하여 악기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혼란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주자의 시가 날로 사방에 전파되자 주자의 시를 들은 자 중에 감동하여 분별할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주자의 시가 사람들에게 끼친 교화는 이남(二南; 周南과 召南)과 서로 견줄 수 있다고 하였다.<sup>42)</sup>

정조는 주자의 시문 415수를 간추려 뽑아 『어정아송』 8권으로 편집하였는데 사(詞), 부(賦), 금조(琴操), 고근체시(古近體詩), 명(銘), 잠(箴), 찬(贊), 제사(題辭), 문(文; 勸學文) 등을 수록하고 있어 학자들의 송습용(誦習用)에 알맞게 꾸며졌다. 이 책은 주자소에서 임진자로 모인(摹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번각하여 장판하게 하였다. 인출 후에는 경연과 주연(胄筵)의 진강용(進講用)으로 쓰고, 존경각에 두고 유생들의 월강용(月講用)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다.<sup>43)</sup>

특히 진강하는 책자는 그 체모가 존엄하니, 태학의 월강용 및 여러 도의 향교와 서원에도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먼저 활자로 인쇄하고, 또 개관하여 『아송』을 새로 인쇄해야 하며, 백면지(白綿紙) 50건, 예단지(禮單紙) 50건, 백지(白紙) 100건을 먼저 인쇄하되, 개관하기를 기다려 다시 즉시 나의 뜻을 물어서 추가로 인쇄하고 종이는 호조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였다.<sup>44)</sup>

주자의 시를 직접 선정하여 『아송』이라 이름을 붙이고, 서문을 지어 권두에 실었다. 글은 모두 8편인데, 사·부·금조 및 각 체시로, 총 415수이다. 이해 9월 15일 처음 인쇄하여 10일이 지나 끝났다고 고하였고, 또 5일이 지나서 진현하였다.<sup>45)</sup>

이 책의 반사에 대해서는 『일성록』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而非僻惰慢之志無以作 邇之可以事父 遠之可以事君 可以興於斯 可以觀於斯 可以群於斯 而先王之詩教 庶幾窺其萬一 子乃編夫子之詩 列之學官 發凡立例 各有所做 輯以選之 所以做其刪經也 類以彙之 所以做風雅之分篇也 銘贊以系之 所以做三頌之附下也 雅頌以命之 所以做聖人之雅言也 …”

42) 정조, “정조 23년 9월 25일 어찰 『아송책(雅頌策)』,”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82-95.

“… 其辭 莊而嚴 其旨簡而奧 存之也靜 發之也果 譬如舜殿韶音惟升歌 不以箏絃亂人聲 夫子之詩 日聞於四方 而聞夫子之風者 莫不有感發興起之思 其功化之及人 幾與二南相上下 …”

43) 규장각 편,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4 (서울: 學文閣, 1970), 196-202.

44)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9월 17일(임신) 기사.

“命新印雅誦 先爲活印 待開板加印 教曰進講冊子體貌尊嚴 太學月講與諸道校院 當爲分藏 而先爲活印 又當開板新印雅誦 白綿紙五十件 禮單紙五十件 白紙一百件 先印待開板更即稟旨加印 紙地則取用度支.”

45)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

“頒新印雅誦 親選朱子詩命名雅誦 製序文 弁之卷首 書凡八編 詞賦琴操及各體詩總四百十五首 是歲九月十五日始印 越十日告訖 又五日進獻.”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조는 새로 인쇄한 『아송』을 주합루에 1건, 서고에 50건, 내각에 5건, 홍문관에 8건, 춘방에 6건, 화성행궁에 3건, 규장외각·오쳐사고·외각·존경각에 각각 1건씩, 성균관의 월강용 5건, 도동서원·남계서원·필암서원·도봉서원·도산서원·옥산서원·소현서원·파산서원·돈암서원·화양서원·홍암서원·반계서원·우저서원·의암서원·덕천서원·동락서원에 각각 1건씩을 반사하였다.<sup>46)</sup>

둘째, 인쇄를 감독한 각신 이만수·심상규, 교정하고 주를 모은 문신 이서구·홍의호·이노춘·김희순, 인쇄를 감독한 초계문신 김이재·조석중·홍석주·김계온과 시원임 각신인 원임 제학 심환지, 검교제학 정민시, 원임 직제학 김희·이병모·김재찬·서정수·서용보·정대용, 원임 직각 김면주·남공철·윤행임·서영보·김조순·이시원, 직각 김근순, 검교대교 이준수, 원임 대교 서유구에게 각각 1건씩을 반사하였다.<sup>47)</sup>

셋째, 초계문신 김이영·조만원·서준보, 이면승, 유태좌, 홍낙준, 김희락, 구득로·신현·권준·강준흠·홍명주·황기천·김처암·이영발·이홍겸, 구선 초계문신 엄기·홍수만에게 각각 1건씩을 반사하였다.<sup>48)</sup>

넷째, 우의정 이시수, 대제학 홍양호, 전 대제학 서유신, 홍문관 제학 황승원, 예문관 제학 이병정, 전 제학 이명식·서유린·정범조에게 각각 1건씩을 반사하였다.<sup>49)</sup>

다섯째, 사부 송환기, 유선 이정보, 요속 정동관·한용화·정일환·신대우·송시연·유한준·박종우·유심춘·송치규에게 각각 1건씩을 반사하였다.<sup>50)</sup>

여섯째, 검서관 유득공·박제가·서이수·이집기·이신모·성해응·이공무·박종선·이옥수·이광규·원유진·정철·김기보, 주자소 감관 유명표에게 각각 1건씩을 반사하였다.<sup>51)</sup>

46)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  
“是是教曰 御定新印雅誦 宙合樓一件 西庫五十件 內閣五件 弘文館八件 春坊六件 華城行宮三件 奎章外閣五處史庫 外閣 尊經閣各一件 成均館月講所用五件 東西上齋四學各一件 道東書院 濼溪書院 筆巖書院 道峯書院 陶山書院 玉山書院 紹賢書院 坡山書院 遜巖書院 華陽書院 興巖書院 潘溪書院 牛渚書院 義巖書院 德川書院 東洛書院 各藏一件.”

47)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  
“監印閣臣 李晚秀 沈象奎 校正輯註文臣 李書九 洪義浩 李魯春 金義淳 監印抄啓文臣 金履載 曹錫中 洪奭周 金啓溫 時原任閣臣 原任提學 沈煥之 檢校提學 鄭民始 原任直提學 金憲 李秉模 金載瓚 徐鼎修 徐龍輔 鄭大容 原任直閣 金勉柱 南公輦 尹行愆 徐榮輔 金祖淳 李始源 直閣 金近淳 檢校待教 李存秀 原任待教 徐有渠 各頒一件.”

48)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  
“抄啓文臣 金履永 趙萬元 徐俊輔 李勉昇 柳台佐 洪樂浚 金熙洛 具得魯 申絢 權峻 姜浚欽 洪命周 黃基天 金處巖 李英發 李弘謙 舊選文臣 嚴耆 洪秀晚 各頒一件.”

49)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  
“右議政 李時秀 大提學 洪良浩前大提學 徐有臣 弘文提學 黃昇源 藝文提學 李秉鼎 前提學 李命植 徐有隣 丁範祖 各頒一件.”

50)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  
“師傅 宋煥箕 諭善 李城輔 僚屬 鄭東觀 韓用和 鄭日煥 申大羽 宋時淵 俞漢雋 朴宗羽 柳尋春 宋稚圭 各頒一件.”

### 3.3 현존본 분석

위에서 살펴본 『어정두율분운』 5권, 『어정육률분운』 39권, 『어정두륙천선』 8권, 『어정아송』 8권의 현존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도서관에 소장된 판본 중 간행연도가 확실하고 완결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정조 『어정두율분운』 5권, 『어정육률분운』 39권, 『어정두륙천선』 8권, 『어정아송』 8권의 현존본

서명	저편자	판본	간행년	판식	소장처
1) 『御定杜律分韻』 5권 2책	정조(正祖) 命撰	整理字本	정조 22년(1798)	四周雙邊 半郭 19.4×14.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黑魚尾; 30.9×24.5cm	규장각, 국회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2) 『御定陸律分韻』 39권 13책	"	"	"	四周雙邊 半郭 19.7×14.3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黑魚尾; 26.3×17.8 cm	규장각 성균관대 존경각
3) 『御定杜陸千選』 8권 4책	"	丁酉字本	정조 23년(1799)	四周單邊 半郭 25.0×16.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 紋魚尾; 34.4×22.2 cm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4) 『御定雅誦』 8권 2책	"	壬辰字本	"	四周單邊 半郭 24.8 x 16.9 cm, 有 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 紋魚尾; 37.6 x 23.8 cm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중연 장서각, 계명대, 부산대, 미국 버클리대, 컬럼비아대

위 <표 2>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어정두율분운』 5권 2책은 이문원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정조 22년(1798)에 정리자로 인출하였으며,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19.4×14.0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黑魚尾; 30.9×24.5 cm’이다. 완질은 규장각, 국회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등에 남아 있다. 이중 규장각본은 ‘奎 3379’, ‘奎 5146’, ‘奎 5482’, ‘奎 2979’, ‘奎 7279’ 등이 있다. ‘奎 3379’는 표제지 이면에 ‘內閣’이라 묵서되어 있고, 권수면에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어 내각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奎 5146’, ‘奎 5482’, ‘奎 2979’에는 ‘奎章之寶’와 ‘史館藏’의 장서인이 찍혀 있고, 표제지 이면에 각각 묵서지기가 있는데, ‘奎 5146’은 정족산성 사고에, ‘奎 5482’는 태백산 사고에, ‘奎 2979’는 오대산 사고에 반사하여 보존토록 한 것이다. ‘奎 7279’는 ‘奎章之寶’와 ‘侍講院’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시장원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회도서관 소장본(OL812.14-ㄷ329ㄷ)에는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고, 교정문신 김희주에게 반사된 반사기록 ‘嘉慶三年(1798)七月日內賜校正文臣金熙周杜律分韻一件

51)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

“檢書官 柳得恭 朴齊家 徐理修 李集箕 李盡模 成海應 李功懋 朴宗善 李旭秀 李光葵 元有鎮 鄭榘 金基普 鑄字監官 柳明杓 各頒一件.”

命除謝恩檢校直提臣李(手決)'이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7월 22일(갑신)조에 나오는 기록과 일치한다. 고려대 도서관본(대학원D1-A1287-1-2)과 연세대 도서관본('고서(용재) 812.14 두보)이 남아 있다.

2) 『어정육률본문』 39권 13책 초판본은 내각에서 편집하고 고문관(考文館)에 휘편(彙編)하였다. 정조 22년(1798)에 정리자로 인출하였으며,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19.7 × 14.3 cm, 有界, 10行18字, 上黑魚尾; 26.3 × 17.8 cm'이다. 현재 완질은 규장각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省軒D03C-0222b)에 남아 있다. 규장각본은 '奎 4230', '奎 6850', '奎 5502', '奎 6737', '奎 6903', '奎 6848' 등이 있다. '奎 4230', '奎 6850', '奎 5502'에는 '奎章之寶'와 '史館藏'의 장서인이 찍혀 있고, 표제지 이면에 각각 묵서지기가 있는데, '奎 4230'은 정족산성 사고에, '奎 6850'은 오대산 사고에, '奎 5502'는 태백산 사고에 반사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奎 6737'은 '奎章之寶'와 '弘文館'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홍문관에 반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奎 6903'은 '奎章之寶'와 '侍講院'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시강원에 반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奎 6848'은 '奎章之寶'와 '內閣'의 장서인이 찍혀 있고, 표제지 이면에 '內閣' 묵서지기가 있어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省軒D03C-0222b)본은 성헌(省軒) 이병희(李炳熹)의 기증본이며 정리자인본으로 매우 깨끗하다.

3) 『어정두륙천선』 8권 4책은 정조 23년(1799)에 정유자로 인출되었고,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 25.0×16.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4.4×22.2 cm'이다. 완질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남아 있다. 규장각본은 '奎 2223', '奎 2224', '奎 2057', '奎 2220', '奎 1868', '奎 938', '奎 1806', '奎 1867', '奎 2110' 등이 있다. '奎 2223'은 '奎章之寶'와, '摛文院'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이문원에 소장되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奎 2220'과 '奎 2057'은 권수제면에 정조의 별호 중의 하나인 '萬川明月主人翁'<sup>52)</sup>과 탕평의 의미를 지닌 '蕩蕩平平平平蕩蕩'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 12월 23일의 편지에 『두륙천선』 당지본(唐紙本)에 정조의 '萬川明月主人翁'과 '蕩蕩平平平平蕩蕩'이라는 도장을 찍어 홍낙임에게 특별히 먼저 보낸 기록과 일치한다. '奎 1868'과 '奎 938'에는 표지 이면에 '華城行宮'의 묵서지기가 있고, 권수제면에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어 화성행궁에 반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奎 1806'과 '奎 1867'은 '奎章之寶'와 '史館藏'의 장서인이 찍혀 있고, 표제지 이면에 각각 '五臺山'과 '鼎足山城'의 묵서지기가 있어 오대산 사고와 정족산성 사고에 반사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奎 2110'은 '奎章之寶' 장서인과 '弘文館'의 묵서지기가 있어 홍문관에 반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BA3715-138)에는 정조 23년(1799)에 전 참의였던 목만중에게 반사한 '嘉慶四年(1799)十二月日內賜前參議陸萬中御定杜陸千選一件命除謝恩'의 내사기가 있다. 이 내사기록은

52) 김영진 외, "정조의 장서인," 『규장각』 45(2014), 106-107.에 의하면, "정조는 만년에 자신을 '萬川明月主人翁'이라 하고 그 연유를 적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를 지었다. 정조 22년(1798) 12월 3일의 일이다. 정조는 자신을 물에 비유하고 세상 사람들을 물에 비유하였다. ... 정조는 스스로의 위치를 높인 것으로 신하들이 범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기도 하다. 정조는 이를 인장에 새겨 사용했는데 정조 말년의 심정이 잘 드러난 인장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일성록』에 없는 반사기록이라 의미가 있다. ‘陸萬中印’과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고려대 소장본은 ‘만송 D2 A324’, ‘육당 D2 A39’의 완질본이 남아 있다.

4) 『어정아송』 8권 2책은 정조 23년(1799)에 정유자로 인출되었고,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 24.8 × 16.9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37.6 × 23.8 cm’이다. 완질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중연 장서각, 계명대, 부산대, 미국 버클리대와 컬럼비아대 등에 남아 있다. 규장각본은 ‘奎 1844’, ‘奎 3935’, ‘奎 1869’, ‘奎 1870’ 등이 있다. ‘奎 1844’에는 ‘奎章之寶’ 장서인과 ‘弘文館’의 묵서지기가 있어 홍문관에 반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奎 3935’에는 ‘奎章之寶’와 ‘摛文院’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이문원에 소장되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奎 1869’와 ‘奎 1870’에는 ‘奎章之寶’와 ‘史館藏’의 장서인이 찍혀 있고, 표제지 이면에 각각 ‘鼎足山城’과 ‘太白山城’의 묵서지기가 있어 정족산성 사고와 태백산성 사고에 반사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b13643-42’와 ‘국립古朝43’이 있는데, ‘b13643-42’본에 ‘奎章之寶’와 ‘守仲’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 4. 결 론

본 연구는 정조가 편간했던 어정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두보, 육유 및 주자 저술의 편간 및 반사 과정에 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연계하여 편간 및 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조조에 편간된 어정서는 왕명으로 이루어진 명찬서를 일컫는다. 왕이 직접 선정해서 신하에게 편집을 일임한 어선 20종과 왕이 직접 편집하고 교수를 일임한 어편 10편이 편간되었다. 어선 20종은 경학 및 역사, 성리학은 학문진작의 일환으로, 시문선은 문체반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어편 10종은 계지술사를 위한 역사, 유가류 및 음악 분야의 책과 문체반정을 위해 국초부터 내려온 관각 문자를 모은 서적이 편간되었다.

2)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에는 두보, 육유 및 주자 저술의 선집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다. 어찰의 기록과 상관관계에 있는 기록들은 『군서표기』,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내각일력』, 현존본 기록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보, 육유, 주자의 개인문집과 시가 중에서 선집을 했는데, 『어정두울분운』 5권, 『어정육률분운』 39권, 『어정두록천선』 8권이였다.

정조 23년(1799) 홍낙임에게 보낸 8월 11일 어찰에는 『어정두울분운』 5권 2책과 『어정육률분운』 39권 13책의 편간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 『군서표기』의 편간기록, 『일성록』의 반사 및 사급기록, 현존본 분석을 하였다. 특히 반사기록에는 중요관청과 관리는 물론 인역할 때 감인한

신하에게도 반사하였고, 간역한 신하들에게는 사급하였다. 현존본 중에서는 규장각본이 가장 관련 깊은 자료들이다.

둘째, 『어정두류천선』 8권의 선집과 관련하여, 정조 23년(1799) 8월 11일 어찰에는 선집 작업에 있어서 자신의 초고에 대한 질정을 외삼촌인 홍낙임에게 부탁해서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실려 있다. 8월 12일 아침 어찰, 8월 12일 점심 어찰, 8월 13일 어찰, 8월 14일 어찰, 8월 15일 아침 어찰, 8월 15일 아침 어찰 별지, 8월 18일 어찰, 8월 22일 저녁 어찰에는 정조가 홍낙임과 함께 『두류천선』을 선집, 교정, 간행 및 반사에 이르는 기록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그해 12월 23일의 어찰에는 『두류천선』 당지본에 정조의 ‘萬川明月主人翁’과 ‘蕩蕩平平平蕩蕩’이라는 도장을 찍어 홍낙임에게 특별히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실려 있고, 현재 규장각본 ‘奎 2220’과 ‘奎 2057’에는 권수제면에 두 개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일성록』 정조 23년(1799) 12월 28일에는 반사내역이 상세하다.

셋째, 주자의 시문 415수를 간추려 뽑아 『어정아송』 8권 4책을 편간하였는데, 이 책의 편집의 중요성은 정조 23년 9월 25일 어찰에 들어 있는 『아송책』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주자소에서 임진자로 간행하여 경연과 주연의 진강용으로, 존경각에 두고 유생들의 월강용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태학과 여러 도의 향교와 서원에도 월강용으로 반사하였다. 이와 같은 반사 내용이 『일성록』 정조 23년(1799) 10월 3일(무자) 기사에도 자세하다. 규장각 소장본들에도 ‘奎章之寶’가 날인된 반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 구순옥. “외조부 홍봉한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 야마구치[山口]현립도서관 소장본.” 『고전번역연구』 8(2017). 193-261.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 규장각 편.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 규장각 편.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4. 서울: 學文閣, 1970.
- 규장각 편.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3년 12월 28일 신해(辛亥).
- 김덕수. “『정조어찰첩』을 통해서 본 정조의 서적 편찬 활동.”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3. 18-34.
- 김영진 외. “정조의 장서인.” 『규장각』 45(2014). 103-133.
- 박철상.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자료적 가치.” 『정조의 비밀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한다』. 서울: 푸른역사, 2011. 20-41.
- 박철상.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자료적 가치.” 『대동문화연구』 66(2009). 11-30.

- 서윤희. “편지글에 나타난 정조의 정국운영과 인간적 풍모.”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정조임금편지』. 서울: 동박물관, 2009. 267-282.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편. 『영·정조시대 풍산홍씨가 유물기증전』. 서울: 동박물관, 2009.
- 안대회. “어찰의 정치학 - 정조와 심환지.” 『역사비평』 87(2009). 157-202.
- 『일성록(日省錄)』 정조 22년 7월 22일 갑신(甲申).
-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 12월 28일辛亥(辛亥).
-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 9월 17일 임신(壬申).
- 『일성록(日省錄)』 정조 23년 10월 3일 무자(戊子).
- 임재완 편역, 하영휘 교열.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삼성문화재단, 2004.
-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163권 90책 『일득록(日得錄)』 文學 3.
- 『정조실록(正祖實錄)』 50권, 정조 22년 11월 30일 기축(己丑).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Dae-hoe. 2009. “Politics of King’s letter: King Jeongjo and Sim Hwan-ji.” *Critical Review of History*, 87: 157-202.
- Ilseongrok*, Jeongjo 22 July 22, Kapsin.
- Ilseongrok*, Jeongjo 23 December 28, Sinhae.
- Ilseongrok*, Jeongjo 23 October 3, Muja.
- Ilseongrok*, Jeongjo 23 September 17, Imsin.
- Jeongjo. *Hongjaejeonseo*, Vol. 163 Books 90 『Ildeukrok』 Moonhak 3.
- Jeongjosilrok*, Vol. 50, Jeongjo 22 November 30, Kichuk.
- Kang, Soon-ae. 1989. *The Study of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by the Kyuchangkak*.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
- Kim, Deok-soo. 2013. “Activities of Publishing Books through Jeongjo’s letters.” *Jeongjo’s Eochalcheop: Imjim’s letters and Kimi’s letters* (pp. 18-34). Seoul: Jangseogak Archives of AKS.
- Kim, Young-jin et al. 2014. “Jeongjo’s Seals.” *Kyujanggak*, 45: 103-133.
- Ku, Soon-ock. 2017. “A Study of Jeongjo’s letters Sent to his Grandfather Hong Bong-han: A collection in the Yamaguchi Prefectural library.” *The Journal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Studies*, 8: 193-261.

- Kyujanggak ed. 1970. *Koonseopyogi: Eojeongseo 3*. Seoul: Hakmoongak.
- Kyujanggak ed. 1970. *Koonseopyogi: Eojeongseo 4*. Seoul: Hakmoongak.
- Kyujanggak ed. *Naegakilyeok*, Jeongjo 23 December 28, Sinhae.
- National Museum of Korea. 2009. *Jeongjo's Letter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Park, Chul-sang. 2009. "The Informational Value of Newly Introduced Jeongjo's Eochalcheop." *The Journal of Eastern Classic*, 66: 11-30.
- Park, Chul-sang. 2011. "The Informational Value of Newly Introduced Jeongjo's Eochalcheop." *Jeongjo's Secret Letters, Jeongjo Tells His Days* (pp. 20-41). Seoul: Purunyoksa.
- Seo, Yun-hee. 2009. "Jeongjo's Administration and Human Appearance of Jeongjo's letters." *Jeongjo's Letter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p. 267-282).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 Sookmyung Women's Univ. Museum ed. 2009. *Poongsan Hong in the period of Young, Jeongjo Period Donated Artifacts*. Seoul: Sookmyung Women's Univ. Museum.
- Yim, Jae-wan tr. 2004. *Jeongjo's letters*. Seoul: Samsung Foundation.